

## 發 刊 辭

韓國 法學界의 泰山北斗이신 徐元宇教授와 朴秉濠教授께서 今年 8月 31日 停年을 맞이하여, 30년이 넘는 歲月을 몸담고 계시던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徐元宇教授께서는 1960년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助教授로 취임하시고 1975년부터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教授로 봉직하시었습니다. 행정부가 주도하는 급격한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변화를 겪으시면서 法治主義를 실현하는 行政法에 관한 정력적인 연구와 교육으로 행정법학의 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法學研究所長과 法科大學長을 역임하시면서 학사 행정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셨습니다. 또한 국내외의 여러 학회와 세미나에 참여하시어 學術交流에 이바지하셨습니다.

朴秉濠教授께서는 1963년부터 母校의 教授로 봉직하시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韓國法制史와 家族法의 발을 학문에 대한 애정으로 일궈 오셨습니다. 韓國法의 傳統을 밝혀내고 체계화하여 현재의 민법학의 발전에 거름을 주신 朴教授의 업적은 後學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반이 될 것입니다. 후학들에게 보여주신 浩然之氣와 慈愛로움도 길이 귀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法學界를 위하여 실로 폭넓고 깊이 있는 업적을 남겨주신 두 교수님의 정년을 맞이하여,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에서는 지난 세월 동안 法學發展을 위하여 애쓰신 교수님들의 勞苦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뜻에서, 이번의 '법학' 제37권 1호를 교수님들의 停年記念號로 발간하여 봉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정년기념호의 발간을 위하여 우리 法學研究所 常任研究員들께서 法學 各分野의 논문 9편과 자료 등 다양한 연구성과물들을 기고해 주셔서 이번 호 '法學'의 내용이 알차고 풍성하게 꾸며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기 중 研究와 講義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玉稿들을 건네주신 여러 教授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6년 5월 23일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長  
李 好 珽